

유럽 정치 '우향우' 속도낸다

의회 선거 극우정당 약진...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상승세 뚜렷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입법기관인 제10대 유럽의회 선거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수한 가운데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결과가 예상되면서다.

EU 27개국 정상들은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찬을 겸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어 유럽의회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EU를 이끌 지도부 구성 논의에 착수한다.

유럽의회가 10일 오전 0시께 발표한 잠정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1당 격인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전체 720석 중 191석(26.53%)을 얻어 유럽의회 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1차 예측 결과에서는 181석이었으나, 개표가 먼저 끝난 회원국 집계 결과 등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예상 의석 수가 더 늘어났다.

기존 의석수(705석 중 176석, 25.0%)보다 비중

이 다소 늘었다.

최종 개표 결과에서 소폭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1당 자리는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EPP도 선거 결과를 두고 '승리'를 일찌감치 자축했다.

제2, 3당도 자리는 지켰지만,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제2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135석(18.75%)을 차지, 의석 비중이 현 의회(19.7%)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3당인 중도 자유당 그룹(Renew Europe)은 현재 102석(14.5%)에서 크게 줄어든 83석(11.53%)에 그칠 것으로 점쳐졌다.

친환경 기후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녹색당-유럽 자유동맹(Greens/EFA)은 현재 71석(10.1%)에서 크게 줄어든 53석(7.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우파와 극우 성향 정치세력은 예고된 대로 약진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서는 압승하거나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강경우파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은 현재 69석(9.8%)에서 71석(9.86%)으로,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49석(7.0%)에서 57석(7.92%)으로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 의회와 비교하면 ECR과 ID 의석 총합은 10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정치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극우 민족주의 성향 정당의 약진도 눈에 띈다.

독일대안당(AfD)은 독일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 2위를 차지, 유럽의회에서 적어도 1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의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올해 선거 투표율이 다수 회원국에서 증가함에 따라 5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019년 투표율(50.66%)을 상회하는 것으로, 1994년(56.67%)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종 투표율 및 의석수는 추후 개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의회는 개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1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내우외환'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전시 각료 사임 선언...조기 총선 촉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을 이끌어온 총리를 비난하며 전시 각료 사임을 선언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휴전 및 인질석방 합의에 나서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간츠 대표의 이같은 조강경 정책을 고수해온 네타냐후 정부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간츠 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네타냐후가 막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비상 정부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나라가 분열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며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올 가을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 실시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간츠 대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

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전시 국민통합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연정 참여를 선언하고 전시 내각 각료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와 청사진 없이 전쟁을 이어가며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 확대와 구호 축소 등을 결정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다.

특히 그는 지난달 6개 항의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이달 8일까지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간츠 대표는 전시내각 투표권을 가진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은 용기 있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이며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옳은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전시 내각 이탈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 걸쳐 실존이 걸린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베니,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썼다. /연합뉴스

미국 경기침체 오나

'립스틱 효과' 재등장

미국 경제를 떠받쳐온 소비가 냉각되면서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침체기에는 여성들이 립스틱을 더 많이 산다는 속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9일(현지시간) 경기침체 여부는 여성들의 입술에 답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동차나 가구 같은 고가 내구재 소비를 자제하는 대신 화장품, 특히 립스틱 같은 기본 전환용 제품 소비를 늘리는 소위 '립스틱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화장용품 업체 세포라는 최근 기록적인 연간 매출 실적을 발표했다.

립스틱 효과는 미국 대공황 시절 처음 확인됐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에서 산업 생산은 절반으로 급감했으나 화장품 매출은 역으로 증가했다는 식이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 로더의 회장인 레너드 로더의 경우 2001년 9월 11일 이후 불황기에 립스틱 지수를 만들었다. 화장품, 특히 립스틱 구매가 경기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CNN은 립스틱 지수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흥미성이 더해진 경제 불황기 지표로 항상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팬데믹 이후 만연하던 미국의 소비 풍조가 끝나면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외 유세에 지지자들이 몰려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트럼프는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경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세계는 'AI 전쟁' 중...기술 투자 박차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의 AI 투자 확대 추세를 전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AI 반도체 칩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의 매출을 지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 정부의 목표는 자국 내에서 첨단 AI를 개발하고 현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국어에 이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이는 첨단 기술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미중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과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책 담당 임

원을 역임한 파블로 차베스는 "범용 AI 혁명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엄청난 불안감을 가진 정부들이 있다"며 "그들은 조금 더 많은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적인 AI 모델 구축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는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꼽힌다. 싱가포르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를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영 통신사인 싱텔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동남아시아에 있는 데이터센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난달 자국의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을 위한 국가 컴퓨팅 전략의 일부로 15억달러(약 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자국의 AI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 7억4천만달러(약 1조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멕시코 첫 여성대통령 배출 기념 타코 등장

200년 헌정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멕시코에서 한 식당 주인이 대통령 당선인 얼굴로 디자인한 타코(멕시코 전통 음식)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9일(현지시간) EFE통신과 현지 일간지 엘솔 데푸에블라에 따르면 푸에블라주(州)에 있는 타케리아(타코 전문점) 비비아니에서는 최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 당선인 얼굴 캐리커처를 활용한 한정판 타코를 출시했다.

'세인바움 타코'라고 이름 붙은 이 음식은 고기류와 채소를 얻을 수 있는 흰 밀가루 토르티야(납작하고 둥그란 형태의 전병 느낌의 떡거리)

에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초록색 염료로 세인바움 당선인 캐리커처를 디자인한 게 특징이다. 해당 타코 전문점은 종교적·문화적·정치적 억압에 맞선 여성 권리 신장 투쟁이 첫 여성 대통령 탄생으로 이어진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세인바움 타코'를 구상했다고 한다.

주인 코니 아코야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955년 멕시코 여성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여성 권리는 종교적·문화적·정치적 억압에 맞선 투쟁을 통해 확립됐다"며 "그 투쟁을 기억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 배출을 기리고 싶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료

-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